

코로나19를 통해 살펴본 남북화해 가능성¹⁾

Online Series

2020. 9.16. | CO 20-25

박 주 화 (통일정책연구실 연구위원)

Eran Halperin, Nimrod Nir
(The Hebrew University of Jerusalem)

2019년, 2020년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대한 정체감이 강화되었고, 이는 북한에 대한 적대인식으로 이어졌다. 하지만 민족정체감과 북한에 대한 공감도 역시 코로나19 이후 강화되었다. 코로나19의 파괴적 경로와 건설적 경로가 확인되었고 이 두 경로가 남북관계에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불확실성의 제거, 공감의 확장이라는 포스트 코로나19 질서의 모델로 남북관계를 조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시대이다. 코로나19는 폭력적이다. 전 세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는 90만 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는 경제, 사회, 문화, 정치, 외교 등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의 중심에는 코로나19가 있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대규모의 물리적, 심리적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완전한 승리가 최종 목표이지만 적어도 코로나19와의 싸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기에 장기전을 대비하고 있다.

1) 이 글은 통일연구원에서 진행중인 『평화공감대 확산 추진전략과 과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자세한 결과는 2021년 1월 출판될 예정이다. Eran Halperin, Nimrod Nir는 과제의 공동연구진이다.

묘한 것은 코로나19 시대 속 우리 사회의 모습에서 6.25 전쟁, 분단이 본격화된 70여 년 전 한국사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²⁾ 전쟁과 분단은 폭력적이었으며, 한반도 구성원의 삶을 지배해왔다. 분단은 한국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했고 개인과 사회의 핵심적 어젠다였다. 남과 북은 전쟁과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방대한 규모의 물리적, 심리적 자원을 투입해 왔다. 남과 북은 승리를 목표로 삼았지만, 최소한 상대에게 지지 않기 위해 경쟁을 벌여왔다. 분단 초기 가시적이었던 분단의 영향력은 시간이 흐르면서 한국사회에 녹아들어 체제화되어 버렸다.

분단의 영향력이 내재화·체제화되어 있는 2020년, 코로나19는 분단 초기 한국사회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맥락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코로나19와 분단은 갈등의 외피는 다르지만 갈등의 구조는 유사한 동형문제(problem isomorphs)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위기와 분단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 역시 유사한 구조를 가질 개연성이 있다.

코로나19, 또는 전쟁과 같이 생명에 위협을 주는 폭력에 노출된 개인은 박탈된 기본적 욕구를 채우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심리적 기제를 발전시킨다. 이 글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두 유형의 심리적 기제, 파괴적 경로와 건설적 경로를 탐색하고 한반도 맥락에서 두 경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코로나19에서 생존하기 위해 발현되는 심리적 기제를 통해 동형문제, 즉 분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들을 살펴보았다.

코로나19의 파괴적 경로: 적대감

사람들은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적 위협, 특히 자신의 삶이 갑자기,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종말을 맞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직면할 때 ① 내집단에 대한 개인의 동일시 그리고 ② 외집단에 대한 적의를 강화한다고 알려져 있다. 진화적, 적응적인 관점으로 볼 때, 외집단과의 거리두기는 감염을 막는데 특히 효과적이었다.³⁾ 외집단은 내집단 구성원이

2) 폭력적 갈등이 적어도 한세대 이상 지속되는 사회의 개인·집단의 심리사회적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한반도 분단에 적용한 사례는 박주화 외, 『2019 한국인의 평화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9)를 참고하기 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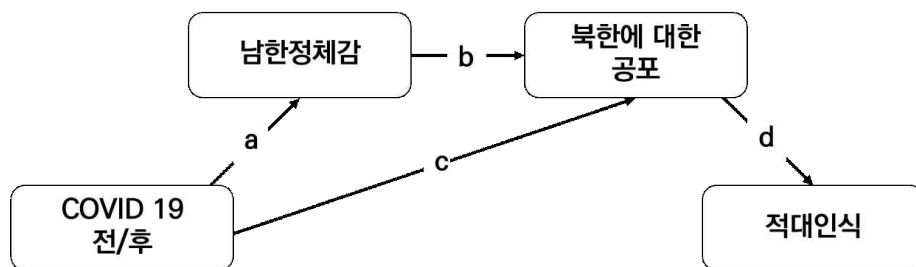
3) Damian R Murray, Mark Schaller and Peter Suedfeld, "Pathogens and Politics: Further Evidence That Parasite Prevalence Predicts Authoritarianism," *PloS One*, vol. 8, no. 5 (2013), p. e62275.

아직 면역력을 확보하지 못한 감염원을 옮길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동일한 사회적 정체성을 공유하는 내집단 구성원이 외집단의 구성원에 비해 자신들을 감염시킬 위험이 적다고 판단함으로써 내집단에 대한 선호와 외집단에 대한 편견을 강화한다.

내집단에 대한 선호와 외집단에 대한 배척은 코로나19와 같은 삶의 실존에 대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 발생하는 공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공포는 개인이 불확실성에 직면했을 때 발현되는 정서로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육체적, 정신적 반응이다. 공포는 자신의 나약함에 대한 인식과 상대적인 피로와 관련이 있으며 개인이 갈등에 대처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존을 위해 내집단에 대한 동일시가 커지고 외집단에 대한 배타성이 강화될 때, 코로나19와 같은 위협이 야기하는 공포, 공포가 야기하는 적대감이 외집단에 전이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설명들은 코로나19 시대의 남북관계 맥락에서 관찰되었다.⁴⁾ <그림 1>은 코로나19 전후인 2019년 대비 2020년의 국민인식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화살표는 인과적 관계를 의미한다. 먼저 코로나19 이후 우리 국민들은 내집단에 대한 정체감, 즉 남한에 대한 동일시가 강화되었고(<그림 1>에서 a경로), 남한 동일시는 북한에 대한 공포를 강화하였다(<그림 1>에서 b경로). 예측대로 코로나19→남한정체감→북한에 대한 공포의 경로가 확인된 것이다. 동시에 코로나19는 북한에 대한 공포를 직접적으로 강화시켰다(<그림 1>에서 c경로). 마지막으로 북한에 대한 공포는 북한에 대한 적대인식을 강화시켰다(<그림 1>에서 d 경로). 코로나19가 남북의 화해를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림 1> 남북관계 맥락에서 코로나19의 파괴적 경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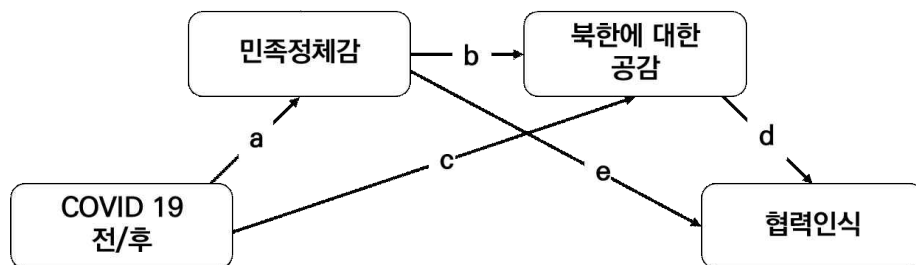
4) 2019년, 2020년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자세한 방법론은 지면의 한계로 생략하였다. 방법론에 대해서는 jhpark@kinu.or.kr로 문의하기 바람.

코로나19의 건설적 경로: 공감

코로나19가 내집단 편향, 공포와 적대감을 넘어 갈등을 겪고 있는 집단 관계에 긍정적이고 의미있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집단이 동일한 운명을 공유한다고 인지할 때, 즉 코로나19와 같은 외부의 위협에 직면한 순간 한 개인이 속한 내집단과 외집단이 ‘같은 배’에 타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집단을 공통적인 상위 집단의 일원으로 생각하게 된다. 한반도의 맥락에서는 민족정체감이 강화되는 것이다.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집단이 공통 상위 집단의 정체감이 현저해지고 강화된다면, 집단 간 협력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갈등하는 두 집단이 같은 배에 타고 있다는 인식, 공동의 위협에 처해 있다는 인식을 가진다는 것은 타인의 경험과 나의 경험을 연결시키는 ‘공감’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공감은 고난 혹은 불행의 맥락에서 타인의 감정적 상태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타인의 슬픔, 공포를 인정하고 자신이 동일한 감정을 경험함으로써 타인의 고통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갖고 있다. 따라서 공감이 협력의 기반이 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갈등을 겪고 있는 두 집단이 공감을 통해 협력을 이루는 경우는 흔치 않다. 오히려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기 위해, 또는 샤펜프로이데(Schadenfreude, 타인의 슬픔은 나의 기쁨)를 위해 상대방의 입장을 분석한다. 과연 70년 적대적 갈등을 지속해온 남북관계에서 건설적 경로는 가능할 것인가?

<그림 2> 남북관계 맥락에서 코로나19의 건설적 경로



코로나19의 건설적 경로 역시 남북관계 맥락에서 관찰되었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국민의 민족정체감은 강화되었고(<그림 2>에서 a경로), 이는 북한에 대한 공감의 강화로 이어졌다(<그림 2>에서 b경로). 또한 코로나19의 경험이 북한에 대한 공감을 직접적으로 강화하는

경로도 확인되었다(<그림 2>에서 c경로). 마지막으로 민족정체감 및 북한에 대한 공감은 북한에 대한 협력인식을 강화하였다(<그림 2>에서 e경로와 d경로).

정책적 함의

이 글은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두 유형의 심리적 경로로, 공포에 기반한 파괴적 경로와 공감에 기반한 건설적 경로를 확인하였다.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파괴적 경로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건설적 경로를 최대화하는 원칙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모범국가인 한국의 대응은 두 원칙에 충실하였다. 먼저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공포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국민들은 확진자의 동선 공개를 통해 갈 수 있는 곳, 갈 수 없는 곳을 구분하면서 감염의 공포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그리고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방역당국, 의료진, 소방, 군, 자원봉사자의 노력과 더불어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는 공감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국민의 절대 다수가 마스크 착용에 거부감이 없는 이유 중 하나도 자신의 보호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타인이 전염될 가능성에 대한 것이다.

이 글은 개인과 사회 전반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와 분단의 문제가 유사한 구조를 가질 수 있음을 제기하면서 시작하였다. 적어도 이 글의 분석에 따른 코로나19의 파괴적 경로와 건설적 경로는 북한에 대한 태도에 적용되었다. 남북관계에서의 불확실성에 근거한 공포를 최소화하고 상대에 대한 공감을 최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70년 분단의 역사 속에서 코로나19의 파괴적 경로가 북한에 적용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주목할 부분은 ‘공감’이다. 전쟁을 경험했고 상대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증오와 분노, 공포가 지배적인 대상인 북한에게조차 코로나19의 건설적 경로가 확인된 것이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포는 불확실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남북은 지금까지 불확실성을 통해 상대에게 공포를 주고자 노력해 왔다.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협력이 필요하다.

불확실성이 야기한 공포를 최소화하는 또 다른 방법은 공감이다. 공감은 상대의 상황을 구성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에 대한 공감이 가능했던 것은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을 직접 경험하고 있어 북한의 상황을 쉽게 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황 구성 경험을 바탕으로 한 코로나19의 건설적 경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실시한 2020년 1/4분기 여론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지역의 응답자들이 코로나19 관련 대북지원에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공감도를 보였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았던 경험이 북한에 대한 공감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⁵⁾ 단순히 북한에 대한 정보, 또는 정보접근성이 문제가 아니다. 북한의 상황을 구성, 경험할 수 있는 정보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감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중요하다. 일방적인 공감은 오히려 부작용이 더 커질 것이다. 북한의 한국에 대한 공감 노력 역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상황, 특히 포스트 코로나19의 질서를 분단의 문제, 한반도 평화의 문제와 연계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코로나19 이후의 질서는 누가 어떻게 코로나19의 파괴적 경로를 최소화시키고 건설적 경로를 확장하느냐에 달려 있다. 전 세계에서 냉전의 잔재가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한반도는 지난 70년 동안 파괴적 경로가 지배해왔다. 전 세계가 한반도의 파괴적 경로가 어떻게 건설적 경로로 전환되는지 목도할 수 있는,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질서의 모델로 남북관계를 조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음속의 38선이 무너져야 땅 위의 38선도 철폐될 수 있을 것이며, 민족 통일의 구상도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백범 김구(1949)

©KINU 2020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0년 1분기 통일여론 및 동향 분석보고서』 (서울: 민주평통, 2020), pp. 12~13.